서갑원 "승리 확신" 이정현 "이미 역전"…예측불허 판세

격전지-순천·곡성

7~8만 고흥향우, 광양·여수산단 출퇴근자 표심 변수

4만2000표 당락선…군소후보들 사퇴·단일화도 촉각

정당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무소속	무소속
이름	이정현(55)	서갑원(52)	이성수(45)	김동철(60)	구희승(51)
주요 경력	·전) 대통령 비서실 홍보수석 ·전) 국회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전)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비서관 ·전) 17·18대 국회의원	·전) 6·4지방선거 전남도지사 후보 ·전) 민주노총 총연맹 기획실장	·전) 전남도의회 교육위원 ·전) 전남도교육감 후보	·전) 산업자원부 서기관 (29회 행정고시 합격) ·전) 광주지법 판사 (40회 사법고시 합격)
주요 공약	·전남 동부권 대발전 계획 ·호남예산 파격지원 ·순천의과대 유치	·생태·문화·관광도시 건설 ·청년·어르신 좋은 일자리 만들기 ·골목경제 살리기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순천만 국가공원지정 ·농가소득 보장	·지역사회 지도자 양성 아카데미 개설 ·빈부갈등 해소 ·청년 창업지원	·순천만 국가정원 1호지정 ·순천대 의대 유치 ·원도심 활성화

7·30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순천·곡성지역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한국 정치지형에 많은 변화가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26일 끝난 사전투표 결과, 전국에서 가장 높은 13.23%의 투표율을 기록한 것도 높은 관심도를 보여준다.

27일 현재까지 판세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다.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서갑원 후보가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통합진보당 이성수 후보와 무소속 구희승, 김동철 후보가 뒤를 쫓는 양상이다.

애초 서 후보가 앞선 상황에서 진행된 선거전은 이정현 후보의 맹추격전 속에 투표일이 다가오면서 이 후보가 역전에 성공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했다.

여론조사 공표금지 전에 여수MBC와 순천KBS가 공동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지지도에서 이정현 후보가 38.4%, 서갑원 후보가 33.7%를 얻었다. 반면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서 후보가 40.8%로 나타나 26.4%를 얻은 이 후보를 따돌렸다.

이 여론조사는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일~21일 사이 순천·곡성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유선전화 임의전화걸기 방식(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으로 진행됐다. 또 지난 21일 지역매체인 순천투데이가 전남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17~20일 나흘간 순천·곡성 유권자 154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정현 후보 45.5%, 서갑원 35.8%로 나타나 오차범위 밖에서 이 후보가 앞섰다. 이 조사는 임의걸기(RDD) 유선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3%P, 응답률은 6.31%였다. 새정치연합 텃밭에서 나타난 예상 외의 결과다.

하지만, 이 여론조사 결과가 그대로 투표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부동층의 묻지마 '2번 투표' 현상이 나타나면 아무리 여론 지지도가 높은 후보라도 승산을 장담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 위기감을 느낀 새정치연합 전남도당이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을 총 동원, 이정현 후보의 바람 차단에 나섰기 때문에 그 결과도 주목된다. 전남도당은 천막당사를 치고 전열을 가다듬는 한편 이 후보가 지지를 호소하며 내세운 논리를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서 후보 캠프 관계자는 "선거 초반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이정현 효과'가 나타났으나 시민이 그 실체와 논리의 허구를 알기 시작했고 반새누리당 정서도 선거 막판 살아나고 있어 힘들지만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럼에도 이변 가능성이 있는 것은 최근 선거에서 새정치연합(민주당) 후보가 승리하지 못한 순천의 특성 때문이다.

순천시장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가 2번 연속 당선됐고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통합진보당 후보가 재선에 성공했다.

순천 유권자는 21만5500여명, 곡성 유권자는 2만6800여명이다. 지역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 투표율을 40% 내외로 전망하고 있다. 이 경우 9만6000여명이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고 이중 3명의 군소후보가 15%정도(1만5000여표)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4만2000여표 이상을 얻은 후보가 이변이 없으면 당선이 가능하다는 게 선거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인구 구도상 순천의 선택이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상황 속에서 순천 출신인 서 후보에게 우호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순천 토박이는 30여% 수준. 반면, 3만여명의 재순천곡성향우 대부분은 곡성 출신인 이정현 후보 지지 성향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광양향우들은 그동안 뚜렷한 투표성향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최대의 변수는 7~8만여명에 이르는 재순천고흥향우의 표심이다. 고흥향우들은 지난 19대 총선에서도 통합진보당 김선동 후보를 집중적으로 밀어 당선시켰다. 따라서 이번에도 고흥향우들이 결집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애초 고흥향우회 지도부는 이정현 후보 지지 성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새정치연합 쪽에서도 김승남 의원 등 고흥 출신 국회의원 등을 동원, 강력하게 견제하고 나서고 있어 향우들의 선택이 주목된다.

또 무소속 조충훈 시장과 새정치연합 노관규 지역위원장 지지세력의 표심도 주목된다. 이들은 공개적으로 표심을 나타내지 않고 있으나 내심 이정현 후보를 응원할 것이란 예측이 지역정치권에서는 나오고 있다. 노 위원장은 향후 자신의 정치적 입지 때문에, 조 시장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이 후보가 이기기를 바란다는 분석인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지지세력이 결집해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실제 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순천에서 인근 광양과 여수로 출퇴근하는 광양제철과 여천산단, 그리고 협력업체 직원들의 표심도 승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정치권에서는 이들이 최근 지역경제 침체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어서 여당 후보를 선호한다는 분석과 오히려 현 정부에 부정적이어서 야당 후보를 지지할 것이란 관측이 교차하고 있다.

마지막 변수는 일부 군소후보의 사퇴 또는 단일화 여부다. 일각에서는 서 후보와 일부 무소속 후보간 단일화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으나 성사 여부와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단일화를 이룰 수 있을지 불투명할 뿐 아니라 사퇴한 무소속 후보의 표가 어디로 갈지도 미지수란 것이다.

이정현 후보 캠프 관계자는 "너무 변수가 많고 정치적 역학 관계가 복잡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며 "다만, 지역발전과 지역구도 타파에 대한 지역민의 열망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권은희, 투표율·득표율 높이기 총력

송환기·장원섭, 막판 뒤집기 안간힘

관심지-광주 광산을

여야 4당 지도부 지원유세 화력 총동원 '중앙당 대리전'

정당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정의당	무소속
이름	송환기(62)	권은희(40)	장원섭(48)	문정은(27)	양청석(54)
주요 경력	·전)새누리당 광산을 당협위원장 ·전)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광주·전남 지부장	·전)서울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전)변호사	·전)통합진보당 사무총장 ·광산구 교육희망네트워크 공동대표	·정의당 부대표 ·전)성공회대 총학생회장	·(사)안전생활실천 시민연대 광주·전남 부대표 ·(재)한국통일진흥원재단 전임교수
주요 공약	·광산교육지원청 신설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문화예술지원센터 설립	·범죄없는 안심마을 조성 ·공인신고자 보호법 개정 ·수완종합체육관 건립	·종합직업체험관 유치 ·전기·가스·물 무상공급 ·광주 제2고속터미널 설치	·무상의료 조속 실현 ·청년 삶 지원 복지국가 ·학벌·학력차별 금지법 제정	·소방·구조공무원 국가직화 ·교사 권리법 제정 추진 ·통합고용복지지원센터 유치

7·30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원 대선 개입' 댓글 사건 수사외압을 폭로했던 권은희 전 수사과장을 전략공천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선거구가 됐다.

새누리당 송환기, 새정치연합 권은희, 통합진보당 장원섭, 정의당 문정은, 무소속 양청석 후보의 다자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광산을 보궐선거는 선거중반 권 후보의 '이력'과 '의혹'이 부각되면서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이 때문인지 여야 정당들 모두 이곳에 집중적으로 '화력'을 쏟아붓으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당 대표 등 지도부 지원유세는 물론 당직자들과 당원들까지 총동원돼 선거전을 치루고 있다.

사실상 중앙당 대리전인 셈이다.

현재 판세로는 광주가 새정치민주연합 텃밭인 만큼 권 후보의 우세가 점쳐진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의 전략공천에 대한 지역민심의 불만과 새누리당이 쏟아내는 권 후보 남편의 부동산 투기 의혹 공세로 인해 바닥민심은 그리 녹록치만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이러한 판세를 고려해서인지 사전투표를 이틀 앞둔 지난 24일 김무성 대표 등 당 지도부와 정몽준 전 대표 등 당 거물급 인사들을 대거 투입돼 송환기 후보를 지원하는 등 '막판 역전극'을 노리고 있다. 새누리당 광주시당도 사실상 모든 전력을 송 후보 선거전에 투입하는 등 '필승'을 다짐하고 있다.

송 후보 측은 "처음 선거에 나설때만해도 두자릿수 득표율이 목표였지만, 지금은 당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송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현재 지역 민심은 마음대로 전략공천으로 내리꽂는 새정치연합의 오만함에 등을 돌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새정치연합 권은희 후보 선거캠프도 이러한 지역민심을 반영한 듯 최근 비상이 걸렸다.

중앙당 및 지역 국회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당직자들이 대거 투입돼 바닥 민심을 다지고 있다.

권 후보도 전략공천에 대한 비판여론을 감안해 '발로 뛰는 선거전'을 펼치며 가능한 많은 지역 유권자들을 만나 직접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표밭을 다져가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권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투표율 30%, 득표율 50%'를 넘지 못한다면 사실상 새정치연합과 권 후보가 '패한 선거'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텃밭에서 투표율과 득표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 유권자들이 권 후보와 새정치연합에 대한 확고한 지지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합진보당도 이 때문에 당 차원에서 사활을 걸고 장원섭 후보 당선에 '올인'하면서 '대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장 후보는 25년 광산에서 '동고동락'했다는 점을 내세워 새정치연합의 '낙하산 공천'을 비판하며 반(反) 새정치연합 민심을 빠르게 흡수하고 있다.

장 후보 측은 "낙하산을 타고 바람처럼 나타난 사람과 25년간 바위처럼 지역과 함께 해온 후보 간의 선택"이라며 "광주 정치의 자존심을 살려내는 대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젊은 패기를 보여주고 있는 정의당 문정은 후보도 중앙당 지원을 받으면서 차분하게 표밭을 다져가고 있다. 또한 정의당 당직자들과 당원들이 모두 투입돼 문 후보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 중이다. 정의당 국회의원단도 지난주 광주에서 지원유세를 펼치며 문 후보에 힘을 보탰다.

문 후보 측은 "참신성과 젊음을 가진 문 후보에게 관심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라며 "선거막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